

제 목	국 문	자가투약의 영향 요인		
	영 문	Factors Affecting Self-Medic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양진선, 이기효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Jin Sun Yang, <i>Kangseogu Health Center, Pusan City</i> Key Hyo Lee, <i>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기효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자가투약은 공식 의료체계와 공존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효과적 활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약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 자가투약의 정의, 보건의료체계상의 위상, 필요성과 유해성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고, ii) 자가투약의 실태를 파악하며, iii) 자가투약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iv) 자가투약 모형의 실증 검증을 통하여 자가투약에 요인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v) 자가투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1) 자가투약 모형의 설정

모형은 지식요인(의약품에 대한 지식), 행위요인(건강 행위, 약물 지향도, 가족의 자가치료 경향), 태도 요인(광고에 대한 태도, 광고에 대한 신뢰도, 광고에 대한 관심도, 과거 자가투약후의 만족도, 전문가신뢰도), 의료요구요인(인지된 건강상태, 의사방문빈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 4개 범주의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자가투약 경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 거주지역, 경제적 수준)은 자가투약 경향에 직접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자가투약 경향에 변이를 주는 요인이므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2) 자료의 수집

부산, 경남지역 주민 7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647명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실제 회수율은 86.7%이다.

3. 연구결과

1) 자가투약의 실태

- 전체 응답자의 자가투약 백분을 평균은 32.5%로 자가투약을 통한 약국이용이 1/3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p < .01$), 연령별로는 10대($p < .10$)가 높았다.

- 자가투약 의약품 중 해열진통제가 1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위장약 및 소화제가 14.2%, 안약이나 파스, 연고 등의 외용제가 13.1%, 드링크제 및 자양강장제가 12.6%를 차지하였다.

- 자가투약시 복용법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는 '약사에게 문의한다'가 32.4%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약품 설명서'가 50.8%, '스스로 판단', '주위 사람에게 문의'가 16.8%였다.

- 자가투약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6%로 우려할 만큼 높았고, 부작용 경험시의 대응은 단순한 '복용 중단'이 59.0% 였다.

- 자가투약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가벼운 병이어서'가 42.2%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선택해도 안전성 및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므로'가 24.5%, '복용이 간편하므로'가 14.2%, '내 병에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가 11.9%였다.

2) 자가투약 모형의 검증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변이는 성별로 남성($p < 0.10$), 연령별로는 1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p < 0.10$), 직업별로는 학생, 행정사무, 판매서비스, 전문기술직($p < 0.01$)의 자가투약 경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자가투약 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01$),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자가투약의 29.5%(R^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회귀계수를 갖는 변수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과거의 자가투약후의 만족도가 클수록, 의약품지식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의사방문빈도가 많을수록, 가족의 자가치료경향이 클수록, 전문가신뢰도가 낮을수록, 광고신뢰도가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전문기술, 판매및 서비스, 행정사무직, 학생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건강행위 실천을 잘 하지 않을수록, 약물지향도가 클수록 자가투약의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